

에너지절약 전문기업의 활동과 발전방향

글 / 오 중 구(에너지관리공단 에너지관리부 차장)

보다 적은 에너지(전기, 열)를 소비하면서도 동일한, 혹은 보다 나은 효율을 가져 온다면, 소비자는 물론이고 국제경쟁력 강화의 측면에서도 바람직스럽다 할 것이다.

이러한 설비를 대신 설치, 관리해 주고 그 비용을 에너지 절감액에서 회수해 가는 기업이 있으니, 이것이 에너지절약 전문기업(ESCO : Energy Service Company)이다. 에너지절약 전문기업(이하 전문기업이라 한다)이란, 에너지 수용자(에너지 사용사업체)의 경제적, 기술적 부담없이 에너지 절감시설의 전부 또는 상당부분을 직접 투자하고, 시설투자로 인한 에너지절감액으로 투자비와 이윤을 회수하는 기업인데, 미국이나 캐나다 등지에서는 에너지 수요관리차원에서 실시된 지 이미 오래된 일이나, 국내에서도 1992년 도입되어 당시 중앙개발(주) 등 2개업체로 출발하여 현재 9개 업체에 이르고 있다.

일반 에너지 다소비수용가가 고효율설비를 도입하려면, 투자재원의 확보의 곤란, 고효율설비에 대한 정보의 결여, 설비구입 및 관리에 부가적인 시설, 인력, 비용 등의 소요, 운영경

험의 부족으로 인한 위험부담 등으로 인해 쉽게 접근하지 못하는 것이 실정이다. 이러한 문제점들을 전문기업이 대신 해결해 줌으로써 에너지 다소비수용가의 에너지 절감에 크게 기여할 수 있으리라 보여진다.

그러나, 에너지절약 전문기업에 대한 인식부족 및 문화적 장애(에너지 수용자의 사업장에 타인이 시설을 투자하여 얻어지는 이익을 배분하는 개념에 대한 경영층의 거부감), 낮은 에너지 가격으로 인한 절약투자의 경제성 저하, 그리고 에너지절약 전문기업의 약체성(전문기업의 기술력 및 경험부족으로 다양한 에너지 절약사업을 제공치 못하는 점) 등으로 아직까지는 걸음마 단계에 머무르고 있다. 업체수가 9개사이지만 3개사는 올해 신규등록 업체이며, '94년 3개업체 총 투자액 61억원에서 '95년에는 6개업체 총 투자비 40억에 불과하다. 이에 정부 및 에너지관리공단은 전문기업의 육성 지원을 위하여 절약시설 투자사업의 정보제공, 공단진단사업 참여로 인한 기술습득의 기회부여, 의견수렴에 의한 제도개선 및 에너지이용 합리화 자금 이용범위의 확대, 에너지

보다 적은 에너지(전기, 열)를 소비하면서도 동일한, 혹은 보다 나은 효율을 가져 온다면, 소비자는 물론이고 국제경쟁력 강화의 측면에서도 바람직스럽다 할 것이다.

다소비수용가와 전문기업의 만남의 장인 “에너지절약마트”의 개최 등, 다각적인 지원책을 마련하고 있다.

전문기업에 대해 잠시 설명하자면, 전문기업이 에너지 사용자의 사업장에 절약설비를 설치, 운영, 관리하면서 비용과 위험을 일체 부담하고, 절약설비 설치로 인해 획득한 에너지 절감액으로 설치비용 및 이윤을 회수하는 기업으로서, 에너지 사용자는 아무런 투자 및 위험 부담 없이 절약설비를 설치할 수 있고, 전문기업과의 계약에 따라 절감액의 일부를 공유할 수 있기 때문에 전문기업은 물론 사업체도 이익을 볼 수 있으며, 더 나아가 국제수지는 물론 환경오염의 방지와 함께 국가 경쟁력 강화에도 기여할 수 있는 유용한 제도이다.

따라서 정부 및 에너지관리공단은 전문기업의 활성화를 위해 에너지절약마트(ESM: Energy Saving Mart)를 개최하여 전문기업의 인식 제고와 그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96년 8

월 30일 인터콘티넨탈 호텔에서 제1회 에너지절약마트를 개최한다.

이번 행사는 통상산업부 주최하에 에너지관리공단, 서울경제신문이 공동으로 주관하고 한국전력의 후원으로 개최되며, 에너지 다소비업체 대표 및 공공기관, 호텔, 병원 등의 중견간부 등 약 1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리게 되는데, 제1회인 만큼 정부나 에너지 다소비업체 및 전문기업 모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이번 행사에서는 전문기업의 절약사업 설명과 우수 사례 발표를 통해 전문기업에 대한 인식을 제고시키고 절약사업의 확산, 보급에 기여하리라 예상된다.

이번 행사가 단순히 수요자와 공급자를 한 자리에 모으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향후 전문기업제도에 대한 폭넓은 공감대를 형성하고, 절약사업의 활성화에 큰 기폭제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높은 등급 제품선택
줄어드는 가계부담**